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arrons: 미 노동시장,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노동국 수정치 발표
- Bloomberg: 파월 의장, 잭슨홀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정책 기로에 직면
- CNN Business: 연방법원, 직원의 비경쟁 조항의 행정부 금지 조치 반대

[미국 금융]

- CNBC: 달러 올해 최저치에서 회복중

[미국 대선]

- CNN Business: 트럼프, '금리 직접 통제 해야 한다'는 당초 발언 취소

[메트로폴리탄]

- Bloomberg: 뉴저지 노선 개선 위해 24억 달러 채권 매각 계획
- Bloomberg: 뉴욕시 레트 급등에 베이비부머 룸메이트 증가

[미국 생활]

- Bloomberg: 미국인들, 250만불 있어야 부자 소리 듣는다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 2월 이후 최저 수준

[에너지]

- Bloomberg: 에너지사 산토스 "천연가스 수요 2050년까지 강세"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미국 제한 조치 이후 회복세
- Bloomberg: 중국 경제학자들, 중앙정부에 경기 부양 추가 차입 촉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은 취업난... 카운슬러의 조언은?
- WSJ: 포드, 수요 부진으로 전기 SUV 출시 취소
- WSJ: 가격 인하 타겟과 T.J. 맥스의 매출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달려 올해 최저치에서 회복중

[미국 경제]

Barrons: The Job Market Is a Lot Weaker Than Reported, Revised Data Show

미 노동시장,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노동국 수정치 발표

- 연방 노동국이 오늘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2개월 간 일자리 증가수를 81만8천개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가 50만개 하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연방 노동국은 당초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자리는 2백90만 개 상승했다고 발표했었다. 대략 매달 24만2천개가 증가한 꼴이다. 그러나 오늘 하향 조정 발표에 따라 매달 증가한 숫자는 17만3천5백개에 불과하다.
- 주로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에서 크게 하향 조정 됐고 이어서 레저와 환대산업, 제조업에서 하향 조정됐다.

Barrons 기사

Bloomberg: Powell Confronts Policy Crossroads With All Eyes on Jackson Hole

파월 의장, 잭슨홀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정책 기로에 직면

- 연준 파월 의장은 금요일 연준의 인플레이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그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연준 관리들이 급격한 경제 둔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향방에 대해 시사할 예정이다.
- 이날 그의 연설은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27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연준 관리들은 미 대통령 선거를 바로 7주를 남기고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상황으로 이들은 공공의 시선을 받으면서 부담스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 그리고 최근에는 수년 간의 가격 압력 이후에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 RSM US LLP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oseph Brusuelas는 “정책적인 오류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 우리가 연준 의장에서 듣고 싶은 점은 연준이 잠재적인 정책 전환 과정에서 어디에서 있는지가 관심사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US judge strikes down Biden administration ban on worker ‘noncompete’ agreements

연방법원, 직원의 비경쟁 조항의 행정부 금지 조치 반대

- 비경쟁조항은 회사들이 자사 직원의 동종 경제 업체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를 연방 거래 위원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금지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 텍사스의 연방 법원 Ada Brown은 “연방 거래 위원회는 광범위한 규정을 채택해서 경쟁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 그는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문제가 있는 비경쟁 관행을 실시하는 곳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CNBC: Dollar ticks up from year low as traders await data and Powell 달러 올해 최저치에서 회복중

- 투자자들이 연방 정부의 고용 관련 데이터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금요일 연설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달러는 올해 유로화 대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오늘 수요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을 올리는 가운데 유로화는 \$1.1132로 상승해 지난 12월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에도 부담을 주었다.
- 다행히 달러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0.15% 하락한 유로화 대비 \$1.1113를 기록했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 국채에 관심이 줄고 달러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국채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발표되는 비농가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다.

CNBC 기사

[미국 대선]

CNN Business: Trump backs off earlier claims that he should directly control interest rates 트럼프, ‘금리 직접 통제 해야 한다’는 당초 발언 취소

-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 조치를 비롯해 연준에 대해 직접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이번 발언을 누그러뜨렸다.
- 그는 “나는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금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며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해 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대통령이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났다.

CNN Business 기사

[메트로폴리탄]

Bloomberg: NJ Lines Up \$2.4 Billion Muni Bond Sale for Transportation Fixes

뉴저지 노선 개선 위해 24억 달러 채권 매각 계획

- New Jersey Transportation Trust Fund Authority는 13억 달러 상당의 교통 시스템 채권과 대략 11억 규모의 교통 프로그램 채권을 10월중에 발행할 것이라고 Fitch Ratings는 밝혔다.
- 이 기관은 뉴저지의 고속도로와 브리지 등 주차원의 교통 인플라 작업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리고 뉴저지 공공 교통기관인 NJ 트랜짓에 추가적인 자본 기금을 제공하게 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YC's Rent Surge Drives 86-Year-Old to Move in With a 'Boommate'

뉴욕시 렌트 급등에 베이비부머 룸메이트 증가

- 특히 뉴욕시 같은 대도시의 렌트가 급등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근 현상으로 베이비붐 룸메이트 이른바 '붐메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룸메이트 생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하버드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거의 1백만명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룸메이트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룸메이트 4명중 한 명은 45세 이상이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 보다 2배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Americans Say It Takes \$2.5 Million to Be Considered Wealthy

미국인들, 250만불 있어야 부자 소리 듣는다

-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도 올라갔다.
- 수요일 발표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순자산 \$250만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작년 \$220만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 나이가 많을수록 부자의 기준도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280만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답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220만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답했다.
-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선 \$778,00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선 크게 하락한 수치이고, 2022년과 비슷한 수치이다.
- 작년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안정된 수입은 1백만 달러로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후 최고치다.
-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X세대가 재정적으로 편안하기 위한 기준을 \$873,000로 제일 높게 답했다.
- 이는 베이비붐 세대 응답보다 12% 높은 수치이고, 밀레니엄 세대보다 20% 높은 수치이다.

Boomers Set the Highest Bar for Wealth

■ Average net worth needed to be wealthy (millions)



Source: Charles Schwab Modern Wealth Survey 2024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me-Purchase Applications Slide to Lowest Since February

미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 2월 이후 최저 수준

- 지난주 미국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모기지 은행 협회(MBA)의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 지수는 8월 16일로 끝나는 주에 5.2% 하락한 130.6을 기록했다. 채용자 신청 건수도 전주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트 더 하락한 6.5%로, 작년 5월 이후 여전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상승했고, 평균 5년 변동 모기지 금리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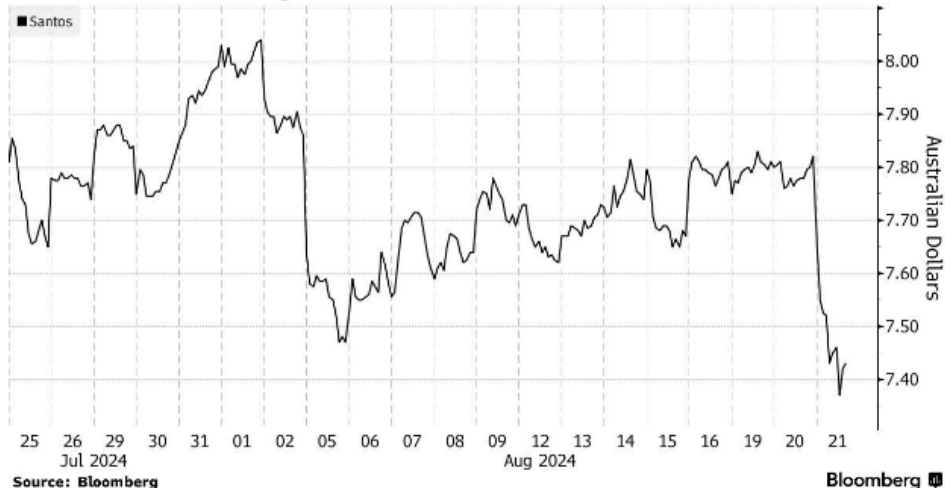
[에너지]

Bloomberg: Natural Gas Demand Will Remain Strong After 2050, Santos Says

에너지사 산토스 “천연가스 수요 2050년까지 강세”

- 에너지사 Santos의 CEO인 케빈 갤러거는 천연가스, 특히 LNG 수요가 2050년까지 강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 갤러거는 생산량을 50% 이상 늘려 10년 내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화석 연료 생산업체를 국제 에너지 공급업체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아왔다.
- 산토스는 수요일 ‘Barosa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80% 완료됐고, 내년에 첫 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갤러거는 “천연가스 수요가 있으며 특히 오는 2050년 이후로는 LNG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토스는 2023년 호주의 라이벌 회사인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합병 제안을 거절했다.
- 사우디 아람코와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모두 산토스 인수를 검토했다.
- 갤러거는 “산토스의 세계적 수준의 LNG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Santos Shares Drop After First-Half Profit Misses Estimate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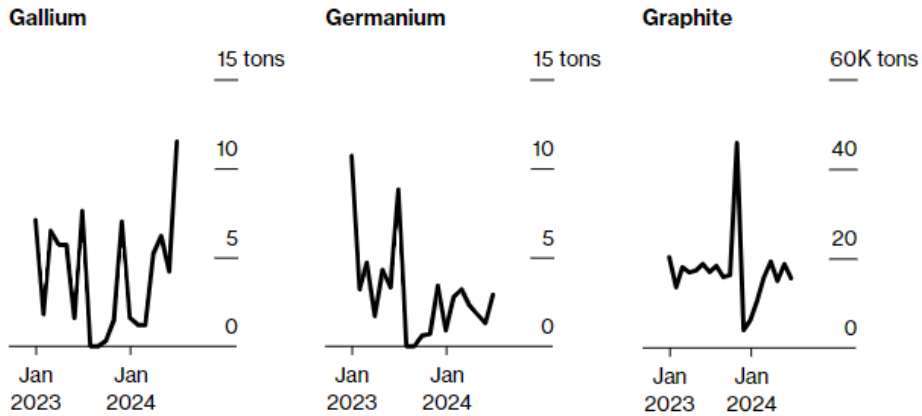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s Exports of Critical Minerals Recover After Curbs Imposed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미국 제한 조치 이후 회복세

-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지난해 중국 정부가 부과한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했던 전 세계 첨단 기술 제조업체들의 공급 차단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 세관 자료에 따르면,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해외 판매량은 수출 통제 이전 한 달 동안 구매자들이 재고를 비축하면서 급증한 후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음 달부터 제한이 예정된 군수품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안티몬(antimony)구매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 중국은 채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원자재 중 하나인 핵심 광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8월과 12월에 시행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칩과 기술에 대한 미국 주도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자국 정유소와 공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ina's Exports of Critical Minerals



Sourc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Note: Exports controls for gallium and germanium were imposed from August 2023, and those for graphite from December.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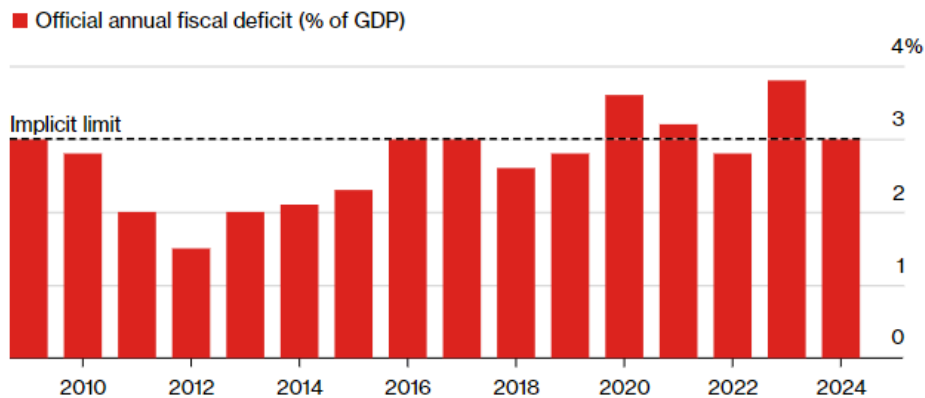
Bloomberg: Chinese Economists Urge Beijing to Borrow More to Spur Growth

중국 경제학자들, 중앙정부에 경기 부양 추가 차입 촉구

- 중국 경제가 수요 부족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앙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차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업라이트 자산운용의 첸제 리우 회장은 정부가 시기 적절하게 예산 적자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말 재정적자 비율을 예상치 3%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수정한 바 있다.
- 리우는 위챗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둔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가계 소비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China Tries to Keep Headline Deficit in Check

Beijing has long sought to maintain the headline fiscal gap at or below 3% of GDP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2 in 3 college seniors are stressed about the tight job market—how to stand out, says career counselor who’s advised thousands 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은 취업난... 카운슬러의 조언은?

- 2025년 대학 졸업반 수업은 이제 시작됐지만, 그들의 취업 전망은 어둡다.
- 졸업반 학생들은 이미 작년 학생들보다 24% 많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또한 그들은 학자금 대출, 11월 대선, 인공지능 발전이 졸업 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답했다.
- 하지만 핸드셰이크 최고 교육 전략 책임자 크리스틴 크루즈버거는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 크루즈버거라는 역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셰이크 데이터에 따르면 원래 기술회사에서 일하길 희망하던 학생들이 채용이 안정된 정부나 의료 분야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일자리 지원은 번아웃을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거기에 부합하는 최대한 많은 일자리에 지원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황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황을 지원해주는 회사를 원하고 있다. 핸드셰이크 데이터에 따르면 채용 공고 회사 중 9%가 복지로 학자금 대출 상황 지원을 제안했다. 이 중 18%가 정부 기관, 14%가 의료, 9%가 비영리 기관, 그리고 6%가 교육 기관이었다.
- 11월 대선 : 졸업반 학생들 중 46%는 11월 대선 결과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루즈버거라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대선 후보가 자신의 미래 업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 졸업반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70%는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루즈버거라는 이러한 실용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졸업반 학생들 중 61%가 향후 관리자에, 48%가 회사 경영에, 47%가 창업에, 46%가 추가로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CNBC 기사

WSJ: Ford Cancels Plans for Electric SU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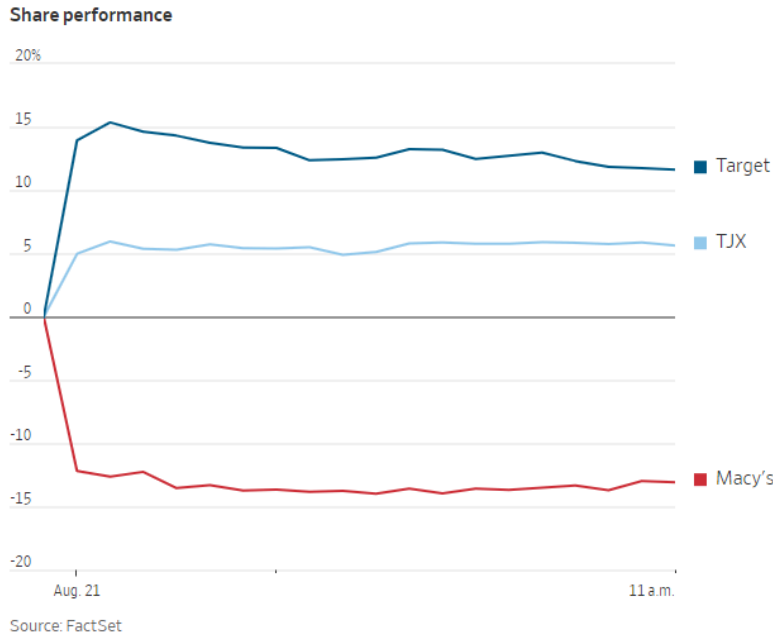
포드, 수요 부진으로 전기 SUV 출시 취소

- 포드 자동차는 예상보다 낮은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계획을 조정하며, 대형 전기 SUV 출시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해 19억 달러의 특별 비용과 손실(write down)을 예상하고 있다.
- 미시간주 디어본에 본사를 둔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올봄 전기 3열 SUV 출시를 2년 연기해 2027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요일 포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공격적인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모델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밝혔다.
- 포드는 대신 브랜드의 익스플로러와 익스페디션 상표가 포함된 인기 차종인 대형 3열 SUV의 하이브리드 가솔린-전기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WSJ 기사

WSJ: Discount-Hungry Shoppers Propel Sales Gains for Target, T.J. Maxx 가격 인하 타겟과 T.J. 맥스의 매출 증가

- 타겟은 가격을 낮추며 연이은 매출 감소가 멈췄고, T.J. 맥스는 또 한 번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 타겟은 최근 분기에서 가격 인하가 매장 방문객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타겟과 T.J.맥스의 소유주인 TJX는 모두 올해 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한 반면, 백화점을 폐쇄하고 있는 메이시스는 또 한 번의 매출 감소와 함께 올해 매출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 실적 발표 후 타겟의 주가는 수요일에 13% 급등했고, TJX도 약 5% 상승했다. 반면 메이시스의 주가는 오전 거래에서 14% 하락했다.
- 타겟의 CEO 브라이언 코넬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계 예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매우 탄력적”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가성비 중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美일자리 증가 애초보다 부진할듯...금리인하 실기론 재부각 우려 채권 시장은 금리인하에 사상 최대 수준 베팅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율이 애초 발표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석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고용보고서 수정치(잠정) 발표를 통해 확인되면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점을 실기했다는 우려가 다시 촉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21일 발표되는 정부의 고용보고서 수정치가 현재 발표된 것에 비해 최소 60만명, 즉 월 5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